장성군, 中企·중장년 일자리 '두 토끼' 잡는다

'전남형 4050 희망 일자리장려금 지원 사업' 추진
10개월간 기업 500만원·취업자 300만원씩 지급

장성군이 일자리장려금 지원 사업으로 중장년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구상이다.

23일 장성군에 따르면 군은 재취업을 장려하고 지역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전남형 4050 희망 일자리장려금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전남형 4050 희망 일자리장려금 지원 사업은 기업이 퇴직한 40~50대 중장년을 채용하면 기업에 500만원, 중장년 취업자에게 300만원을 10개월로 나눠 각각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지원 사업에 참가할 중소기업과 중장년 미취업자를 모집한다.

올해 사업규모는 3명으로 사업대상 기업은 장성에 소재한 고용보험피보험자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4050 중장년을 신규 채용할 계획에 있고 지원금을 제외한 월 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인 사업장이면 가능하다.

또 신규채용자는 현재 전남에 주소를 둔 만40세 이상 59세 이하인 중장년 중 현재 미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중소기업, 중장년의 참여 신청기간은 오는 6월14일까지이며,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해 장성군청 일자리경제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일자리경제과(061-390-7467)로 문의하면 된다.

장성군 관계자는 "4050 희망 일자리장려금 지원혜택이 침체된 중장년 일자리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길 바란다"면서 "지역의 많은 기업과 중장년들이 참여해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화순군이 쌀값 안정과 소득 작물 다양화를 위해 논 타작물재배 지원 사업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콩 재배단지.

화순군, 논 타작물재배 지원 사업 '총력'

콩·조사료 재배 농가 올 12억여원 지원 쌀값안정 기대

화순군이 쌀값 안정과 소득 작물 다양화를 위해 논 타작물재배 지원 사업(쌀 생산 조정제·이하 타작물재배 사업)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논 타작물재배 지원 사업은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했으며 벼 대신 콩, 풋거름작물, 조사료(사료작물) 등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화순군은 올해 총사업비 12억8800만원(국비 포함)을 투입해 타작물재배 면적 379ha를 목표로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이다.

군은 지원 규모, 연계 사업 등을 확대해 면적 확산에도 힘을 쏟고 있다.

보조금을 지난해보다 대폭 인상(조사료 30만원·두류 45만원)하고, 올해부터 벼를 재배하던 논을 휴경만 해도 보조금을 지급한다.

올해 1ha당 품목별 지원 단가는 조사료 430만원, 일반·풋거름작물 340만원, 두류 325만원, 휴경 280만원으로 평균 340만원 정도다.

특히 군은 작물의 수익성 분석과 지역의 논 배수 환경 등을 고려해 사료용 옥수수 재배 면적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군은 조사료 경영체와 협의해 '일괄 위탁 생산·판매 방식'으로 재배 면적을 늘리고, 참여 농가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

군은 지난 1월부터 타작물재배 신청을 받고 있다. 접수는 6월 28일까지 할 수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쌀값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벼 재배면적을 적정 수준으로 줄이지 않으면, 가격 폭락은 피할 수 없다"며 "쌀값 안정, 재배 작물 전환에 따른 농가 소득 증대 등 효과가 있는 타작물재배에 농가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

담양군, 지역 임산부 대상 '아기사랑 건강교실' 운영

담양군이 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아기사랑 부모사랑 건강교실'을 운영한다.

올해 상반기 아기사랑 부모사랑 건강교실은 다음달 12일까지 매주 수요일 진행된다.

참가 대상은 지역 보건기관에 등록된 임산부다. 군은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출산과 육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임산부의 산전·후 관리 교육을 통해 안전한 분만과 태아와 모성의 건강증진도 도모할 예정이다.

이번 건강교실에서는 모유수유의 장점과 수유 중 음식 관리, 출산 전후 우울증 극복, 임산부 발 관리 교육, 기저귀 가방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담양군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행복하고 건강하게 소중한 새 생명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출산 전 검진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서비스, 출산장려금 지원 등 여러 사업을 통해 저출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서영준 기자 xyj@

담양군, 군민 중심 '주민자치' 박차

마을리더 발굴·지방공무원 육성 등 주민자치대학 개강

담양군이 군민 중심의 '담양식 주민자치'를 만들기 위해 소매를 걷어붙였다.

23일 담양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주민자치위원과 주민, 공직자 43명을 대상으로 주민자치대학 전문가 과정을 개강해 운영 중이다.<사진>

주민자치대학은 주민의 자치역량 강화, 마을리더 발굴, 자치행정을 펼치는 지방공무원 육성 등을 목표로 하는 교육과정이다.

개강 강의에는 전남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문병교 센터장을 초빙해 '왜 마을은 자치를 하려 하는가?'라는 주제로 주민자치와 자치분권의 필요성과 이해, 주민으로 역할 및 자세 등을 내용으로 강연이 이뤄졌다.

문 센터장은 "지방자치의 핵심은 주민이며 주민이 살고 싶은 마을을 직접 만들 수 있어야 진정한 주민자치다"며 "앞으로 주민이 중심이 되는 주민자치가 담양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교육은 9월 말까지 ▲마을의 리더로 산다는 것 ▲마을 속의 삶을 연찬하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이해 ▲주민자치의 법과 제도 ▲갈등의 이해와 민주적 토론기법 ▲우리가 만드는 주민자치대학 등의 다양한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담양=서영준 기자 xyj@

장성경찰-한전 장성지사 업무협약 체결

전신주 경광등 설치 '교통사고 제로' 만전

장성경찰서는 한국전력 장성지사와 전주에 경광등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

이번 협약은 최근 증가하는 전주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전주에 경광등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 안전을 확보해 전력공급 중단을 막고 군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됐다.

업무협약으로 경찰과 한전은 국도, 지방도, 군도 등 도로위험구간(커브길, 과속구간, 교차로 등) 차량의 전주 충격 발생지역 및 우려지역 공유에 관한 사항, 전신주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장소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긴급 상황 발생 시 각 기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협조 사항 등에 힘을 합친다.

이재승 장성경찰서장은 "장성군민의 안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한국전력 장성지사의 노고에 감사하며, 앞으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2019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고객 만족도 조사

화순군, 전국 기초단체 99곳 중 1위

화순군 하수도 공기업이 '2019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 99곳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지방공기업 평가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전문업체에 의뢰해 매년 시행하는 고객만족도 조사다.

서비스 환경, 서비스 과정, 서비스 결과, 사회적 만족, 전반적 만족 등 5개 분야를 일괄 설문지 방식으로 구성해 진행한다.

화순군 하수도 공기업은 조사 결과 전국 99기관 중 최고점을 받아 1위에, 화순군 상수도 공기업은 전국 119기관 중 22위에 올랐다.

화순군 관계자는 "내년 지방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에서도 1위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더욱더 고객 서비스 수준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